

‘끝나지 않는 이야기’를 위한 리서치

이 글은 당산동 부군당 답사 퍼포먼스 <끝나지 않는 이야기>를 제작하기 위한 리서치의 편린들이다. 도심에서 사라져가는 곳의 흔적은 종종 동네 안에 혹은 마을 어른들 몸 안에 오버랩되거나 현재 안에 감싸인 과거로서, 포착 불가능성의 긴장으로 드러난다. 안무가 서영란의 페이스북의 타임라인은 리서치 과정에서의 그러한 단편들을 노출하고 있으며, 그 일부를 발췌하였다. 퍼포먼스는 2011년 11월 12, 19일에 걸쳐 당산역과 당산동 부군당 주변에서 있었고, 또 다른 형태와 제목 <나의 신앙을 고백합니다>로 12월 16일 백남준아트센터에서 소개되었다.



관동비탈 (1/2011)

바람춤을 추라는 장승 할아버지의 말씀이 계속 메아리치더니 2년이 지나서야 고개가 끄덕여졌다. 장승학교, 탈 박물관을 만드신 선생님과 이야기하면 내 고민 깊은 곳까지 말하게 돼서 어느 순간 불끈 힘을 주게 된다. 더 눈을 크게 뜨고 피하지 않고 진실 되게. 지성을 갖춘 분들, 영성을 갖춘 분들을 계속 만나게 된다. 감사한 분들. 신은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신다.

—2011년 8월 23일 오후 1:16 모바일에서 [사진 1] 논다 논다 논다

“사물들이 더 나아질 수 없다고 말함으로써 존재하는 낙관론이 있다. 그러나 오히려 나의 낙관론은

사물들이 상당히 변화될 수 있고 무너지기 쉬우며, 필연성보다는 환경에, 자명함보다는 임의성에 묶여 있으며, 불가피한 인간학적인 구속보다는 복합적이지만 일시적이고 역사적인 환경문제와 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말함으로써 존립한다.”

효험이 없는 것은 사라지게 마련이란단. 그래서 지금 사라지고 있는 것들이 당연한 일이라면 슬프다.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효험은 한치 앞을 못 보는 효험같던디.

옛 어른들도 요즘 모기는 옛 모기만큼 예의를 알지 못한다며, 불교든 유교든, 글씨마저도 예보다 타락했다며 속기가 꺾다며 분해하신 글들을 보면 예와 비교하여 현재를 한탄하는 것이 어제오늘 일이 아닌가보다.

그 효험이라는 것이 임의적이려면 난 사라지고 있는 것들을 정신에 기억에 록 남겨 끈질기게 붙잡고 기억할거야. 그것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더라도. 마을사람들은 경제 사회적 이유로 뿔뿔이 이사 갔다. 미신이라는 불편함 때문에 마음이 떠났다. 일방향 보여주기 공연이 되어 마을사람들에겐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다. 그것을 다시 해체한다면?

다시 동네라는 모두의 퍼포먼스 장소 떠난 이들과 남아있는 이들의 삶, 행위는 마을곳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 없을까. 이방인에게는 어떤 의미? 우연?

—2011년 9월 4일 일요일 오전 12:14

«서울의 마을곳» 책을 보고 무작정 찾아가 본 영창동. 부군당 표석도 당산나무도 없었다. 나무 있던 자리는 이런 가림막과 한강 들레길이 만들어져 있었다. 책에 나온 사진의 뒷풍경만이 똑같은 뿐. 아무래도 연구하시는 선생님들을 먼저 봐야 할 듯.

—2011년 9월 6일 오후 3:00 모바일에서 [사진 2] 방학곳지 부군당. 동네에 오래 사신 분들이 정성으로 치르던 마을곳인데 전승하시던 할머니가 편찮으시다. 동사무소와 부녀회에서 이제 관광한다고 하나 형식이 많이 달라져 어른들은 마음이 달갑지 않으신 듯. 말씀



[사진 2] 명칭동 풍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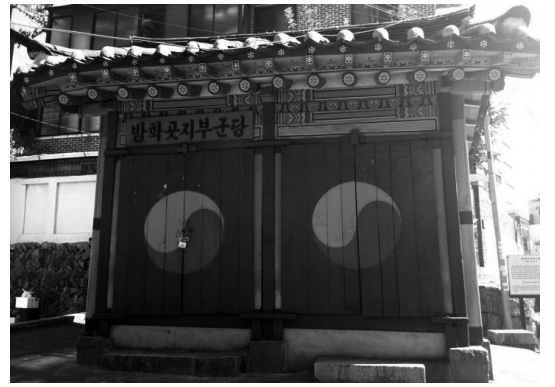
내내 젊은이들, 기독교인들의 눈치를 보시며 마음 편히 무속을 믿지 못하시는 할머니. 우리 왜 이렇게 타인지향적인 민족이 되었을까. 주체성 없는 타인지향. 뿔속 깊이까지. 자신이 소중한 줄 아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인가 보다. 중국식 자본주의에 넘어가는 식민지화에 익숙해진 아프리카도, 외부에서 온 종교에 별별 떠는 한국도 걱정이다. 유교식 전통과 정신 속에 기독교를 자연스럽게 끌어오신다는 그 목사님을 만나러 가야겠다.

—2011년 9월 7일 오후 12:43 모바일에서 [사진 4] 당산동 부군당. 동네주변에 옛 공장 터들이 은근히 보인다. 마을사람들이 순대국을 만든다. 십년 전 초등학교생들이 단체관람 했다는데 그들의 기억 속에 밤섬 부군당곳과 순대국은 어떻게 자리 잡고 있을까? 참 당산2동 주민센터 공무원님들 아주 친절하십니다. 감사감사. ~_~

—2011년 9월 9일 오전 10:34 모바일에서 [사진 5] 유교식 고사만 지내는 신기리 도당제. 회장님께서 손수 문 열어주셨다. 사진 찍어도 되냐는 말에 할머니 할아버지 예쁘게 찍어달라고 호탕히 말씀하신다. 오랜 토박이들만 향우회를 만들어 제사를 이어가고 계신다. 점점 개인화되면서 마을곳이 없어진다고 어떻게 참여가 가능할까 함께 고민까지 했다. 굿 보러 다니다가 안 다치게 조심하라는 제 걱정까지.ㅠ 뒤통수 좋은 거 설명해줄 게 없을까 고민하시다 10월 29일 제사 때 오면 막걸리 한 잔 하기로 했다. 호호.

—2011년 9월 14일 오후 4:48 모바일에서 [사진 6] 신길3동 도당. 당산동 부군당 회장님은 제 전화를 피하시고.ㅠㅠ 신길2동 부군당은 노쇠하신 할머니 소식에 길을 잃다가... 30년 마을굿 준비하셨다는 부녀회장님과 또 다른 할머니가 계시다는 소식에 눈이 번쩍. 신길3동 주민센터에서 소개해주신 신기리 향우회 회장님 전화 드리니 지금 바로 오라는 말에 다시 번쩍!!

—2011년 9월 14일 오후 4:48 모바일에서 [사진 7] 공덕골 도당제. 과거에는 110개의 집을 유가 돌기 했다는데 지금은 참여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문화재 지정이 안 되고 돈이 부족해 이젠 안 된다고 하신다. 그러면서도 이십 년 간 동네의 경조사를 기록한 노트를 자랑삼아 보여주시는 한 할아버지. 이야기할수록 조사할수록 너무 슬퍼요. 계속 이제는 안 된다. 아니면 보여주지 꼭 퍼레이드, 종합선물세트로 만드는 수밖에 없는 소리만 들려요.



[사진 4] 방화곶지 부군당



[사진 5] 명산동 부군당



[사진 6] 신기리 도당제

아아. 어이쿠 내가 이러면 안 된다. 신바람 나서 아주 우연적으로다가 침투하여 변신할 방법을 늘다가 발견해야 해.

—2011년 9월 15일 오후 1:59 모바일에서 [사진 8] 마을굿 하기 전에 마을을 돌면서 추렴(걸립, 유가 돌기 등등의 명칭이 있다)하면서 집집마다 음식이나 돈, 쌀 등을 성의표시로 받는다. 마치 제의에 봉헌하듯이. 옛날에는 그렇게 하면 몇 포대 몇 가마가 가득 찼다고 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사상을 차리고 배불리 먹고 무당에게 사례도 두둑이 해줄 수 있었다고.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빵 몇 개, 생선 몇 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예수님의 기적이 생각났다. 자신과 남을 위한 봉헌, 거기서 출발함이 다름 아니다.

—2011년 9월 18일 오전 12:30 모바일에서 사라져가는 것들에 역사책에 너무 감정이입 되어 한풀이하듯 글을 써버렸지만 내 눈은 계속 그것들만 찾는다. 끝까지 잡고 물어져 보석 같은 그 부분을 드러내야지. 지금과 만나는 방식으로. 아 머리아 두뇌야 용을 써 봐. 열심이라고 하면 촌스러운 듯한데 문서 정보들을 그런 식으로 흡입하고, 연습실에서는 위와 같은 식으로

팔다리 몸통 운동 감각 깨우기 활동을 하고
길에서 할아버지들의 반복되는 말들을 말보다는
뉘앙스로 듣고 있는데, 이것들이 어떻게 만났지는
나도 너도 그도 모를 일이다. 우연히 갑자기 획 드러날
것 같은데 아직은 각각의 격차 간극이 커서 마음이
졸졸거리고 있다. 아.

—2011년 9월 21일 오후 1:13 모바일에서
마을굿 돈굿

이제 선불리 굿이라는 단어를 안 쓰게 되었다.
“굿!!”이라며 살짝 인상을 찌푸리며 되묻는 사람들
덕에. 나는 찌릿한 마음을 감추며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제사지내는 거야”라고 말을 바꾼다.
제사라는 것도 유교에 무교를 끌어온 거라던데.
무속은 난잡하고 유교는 고상한 듯한 그런 인상.
사람들에게 뿌리 깊게 박힌 무교의 인상. 왜 이렇게
타인지향적인 민족이 되었을까 원망도 했지만
조선시대부터 커져온 억압은 엄청났던 것 같다.
서양 선교사들이 그 유명한 비숍여사가 남긴 기록에
무교를 향한, 우리나라 어른들의 종교관, 사고관을
해석한 시선은 완전한 멸시, 천박히 여김 이상이었다.
그 업신당함 끄트머리에 진창이라도 진창 같은
전통이라도 좋다면 목 따듯이 소리치는 김수영의 시가
나왔구나 싶다. (요즘은 미국이나 유럽이나 사면이라
하면 웬만한 지식인들은 사기를 쳐도 넘어갈 정도로
환상을 품고 있는 것 같던디...)
조사할수록 근대 전후의 안타까운 역사와 현재의
세태, 현주소가 보여서 괴롭다.
마을굿에도 자본주의 시스템은 똑같이 도입되었다.
돈으로 무당과 음식을 해결하고, 고용자와
피고용자가 존재한다. 문화재가 되면 좋은 것은 그
행사를 해결할 수 있는 돈이 생기기 때문이다. 마을굿
전승인들에게서 돈이 필요하다 돈이 많이 든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내 기대와 희망도 깎아 들어간다. 마치
무언가에 씌어 짓눌리는 것처럼 무력해진다.
돈이라는 귀신이 옛날의 호구 마마병보다 무섭다.
그것이 우리들 어깨 목덜미에 다 올라타 있다.
나는 그냥 이 세상 사람이 아니기를 선택하련다.

—2011년 9월 21일 수요일 오후 11:22
미시 안무.

거시 안무.
~환경, ~도시농업 공동체, ~대안학교 등등
각자의 구멍에서 그들의 ‘뜻’이 ‘운동’하도록 노력하는
이들이 모두 안무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일상을, 관계를, 공동체를, 사회의 한 틈을
안무하고 있군! 일단 사람 마음을 안무하는 것부터
시도해봐야겠다.

우리 아버지 마음도 사로잡지 못하는 ‘나’이지만
당산동 마을의 공기를 안무하고 싶어요. +_+ 용기!

—2011년 9월 22일 오후 11:36
염창동, 영등포본동, 신길3동, 당산동, 공덕골, 당인동,
한남동, 보광동...

전화만 하거나, 안 간 곳들은 이미 무형문화재나
기록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소외된 듯이 보이는
3곳만 더 가고 마침표를 살짝 찍어야지.

서울에서 산 지 8년 되었지만
걸어보지 못했던 곳, 공기 맡아보지 못했던 곳이 더
많았다. 그 자리를 계속 지키며 휩쓸리며 지내셨던
할아버지들을 귀찮게 졸라서 꾸집하게 옛날 이야기를
들었다. 이야기라기보다는 그 분이 겪었던 날들에
대한 뉘앙스를 들었던 것 같다. 그 뉘앙스 공기가 어린
나에게는 너무 무거워 일주일간 몸을 말았다.

그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밖으로 나갈 틈이 있는지
없는지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더라도 그 공기는
계속 함께 할 거다.

공덕골 할아버지의 범처럼 무겁고 풀잎처럼 정겨운
공기와 집과 집이 계단과 문을 타고 이어져
마술부리는 할머니가 대문을 2개 열어줘서 본
당인동의 공기도.

내가 어디를 가든지 계속 따라다닐 거다.
내년에는 지구 어디로든 툭 튀어버릴 무계획
계획이었는데 어째 이곳이 그리워질 게 뻔히 보인다.

—2011년 9월 23일 오전 1:27

우리나라 무교에서(무속이 무교를 낳춘 말이라고
한다. 그리고 무당보다 무인이라고 하는 어감이 더
좋게 여겨진다. 마을 제주 할아버지가 사용한 그
단어에서 오랜 세월 함께 서로의 복을 빌어준 무인에
대한 배려와 존경, 애정이 느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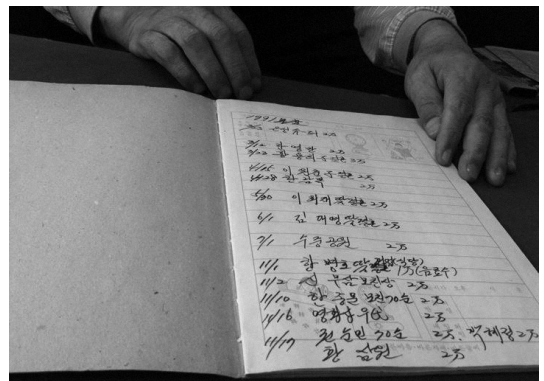
구체적 형상을 묘사하는 무신도, 상의 형태로
모셔지는 신들은 대체로 불교, 도교에서 유래한다.
반면 가신신앙에서 가신들은 단지 독, 향아리, 바가지,
종이 등의 신체로 모셔진다. (이것이 너무 예쁘다. 그
생활공간 물건 하나하나에 신성이 깃들여 있고 그
물건들과 함께 하는 생활을 정성스럽게 할 수 있지
않나... 너무 아름다운데.)

한국의 무속은 생활공간, 자연환경, 죽은 자 등과의

[사진 3] 신길3동 무당



[사진 8] 공덕골 도당체



관계로서 인간 삶을 이해하고 있다. 사람은 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일정한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자.

—2011년 10월 3일 오후 12:23 모바일에서
사실 아주 사소한 순간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우연히 채널을 돌리다가 본 제주도의 박수무당이 굿을 하다가 같이 사는 마을 할머니(오랫동안 알고 지내 서로의 가정을 속속들이 아는. 몇 해 전에는 딸을 먼저 보내셨던)에게 무당으로서의 영험함을 내려놓고 그냥 “할머니 그 동안 얼마나 힘들었소”라고 속 깊이 굿어주는 그 한 마디를 듣고 나는 몇 년을 거기에 사로잡혀버렸다.

—2011년 10월 3일 오후 1:14 모바일에서
‘당산동 할머니, 할아버지, 부군당과 마을을 지켜준 은행나무의 이야기를 들어야지, 그들에게 이런 내 마음을 주고 함께 잔치를 벌여야지’ 정한 순간부터 11월 공연이 끝날 때까지, 어떤 것도 정해지거나 변하지 않는 것은 없게 되었다. 미친 듯이 초조해진다. 결국 다시 성경을 들었고 그에게 모든 잘 보이고 싶은 마음과 잘 못 보이는 두려움을 올린다. 지금만은 나는 사막 위를 야간비행 하는 조종사이런다. 그래도 오늘은 우리 말에 눈을 등글려 끄덕이시던 조박사 할아버지, 보양탕집 아주머니 덕에 배부르게 잔다. 당산동은 그렇다 치고 또 없어지는 다른 곳은 우야노.

—2011년 10월 8일 오전 1:19 모바일에서
포유류와 인간 속에서 혼자 남아남아, 다른 자신이 들길까 두려운 공룡.

이탈로 칼비노의 «코스미코미케» 중 디아노사우루스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한다.

마을굿을 겨우 이어가는 제주님과 토박이들. 이제는 더 못하겠다고 힘든 소리 하신다. 군중 속으로 몸을 감추는 마지막 디아노사우루스를 보는 기분이다. 이렇게 사라져가는 공룡들을 보고 보내는 나는 소주 대신 뽕뽕로 하나 들고 암바사 마신다.

—2011년 10월 13일 오후 5:01 모바일에서
당산동 사람들의 마음과 공기를 안무하겠다고면서 자체 대외협력과 활동을 하면서.

의심하는 마음들을 본다.

나에게 뭘 원하는 거냐며 돈 주라는 말 하지 말라거나 돈 안 되는 이 일을 왜 하냐고 의문스러워하거나 맨 발로 뛰어 만든 기획안을 그들의 성과로 보고하라거나 욕지거리 같은 의성이 한번 지르고 묻는다. 이런 때 저는 어떤 마음가짐 어떤 상태여야 하는 걸까요? 소위 비대칭적 사고를 하는 사람과 대칭적 사고를 하는 사람이 만났을 때 어떻게 지혜롭게 처신할 수 있죠? 칼 들고 나타난 스페인 군대에게 잉카인마냥 차라도 대접해야되나요? 더 현명한 방법, 이 시간 이 장소 모두에게 이로운 방법은 뭘까요? 지혜를 주소셔. ~_~

—2011년 10월 14일 오후 10:33 모바일에서
이부자리가 무겁다. 부군당 조사하다 내가 놀리나? 모든 건 기싸움이다. 기의 현명한 운용이 필요하다. 내가 있는 이곳이 티베트인 것 마냥 지내기로 했다. 아침에 정발산에 올라가 운동하고 노래를 부른다. 당산동의 새로운 토박이 분들을 만났다. 숨겨진 길,

새로운 이야기를 알게 된다. 그분들의 마음을 여는 건 쉽지 않다. 할머니들은 집에서 일만 하는 우리가 뭘 아나 하시고 할아버지들은 앞서서 의심하신다. 내가 절세미인이었으면 좋았으려나. 어른들이 이 이야기하다 갑자기 저 이야기로 날아가고 두 분이서 서로 딴 이야기를 합주처럼 하시는 게 참 신기하다. 내용을 논리적으로 엮는다는 게 이상할 정도다. 칠호선 급행을 타다 4호선 동작을 보고 불쑥 내려버렸다. 충동적으로. 국박에 초상화 보러 가야지~랄라라

—2011년 10월 31일 오후 2:38 모바일에서
항상 공연 전날은 내가 또 사고를 치는구나라고 잠이 듭니다. 매일 리서치 중. 공연 끝날 때까지 리서치 중입니다.

초조하다.

아버지 표현을 빌리자면

피가 마른다.

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러자 매일 보던 자연이 거대해 보인다. 더 울창하고 거대해 좋다. 이런 순종은.

—2011년 10월 31일 오후 8:52 모바일에서
이번 작업은 처음 해보는 것이어서 내가 부정으로 치우쳐 생각하거나 느끼고 있는 것인지 판단이 되질 않는다. 객관적으로 거리두기, 거리 두고 바라보기가 잘 되지 않는다. 좌우간 자충우돌 애간장 바짝 하는 속에서도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자체가 기적이다. 생각한 대로 행동함 이외에는 모두 신의 손으로 이루어졌다. 천운이다.

실패하라 또 실패하라 더 잘 실패하라.

—2011년 11월 10일 오후 12:50 모바일에서
토토로, 바람계곡 나누시카, 나디아, 예반계리온 속에 담긴 원시신앙과 자연관, 고대의 형태들을 보며 불기둥 활활 타올랐었다. 여긴 전쟁을 기점으로 다 사라졌는데... 그 생각을 안고 떠돌아다니던 지 몇 년, 딱잎처럼 조금 비집어 밖으로 나온다. 예상 못한 따가움도 많이 만나다.

방금도 한 아주머니의 불참전화가 왔다. 두 달 동안 이곳의 불만불평을 다 들은 느낌이다. 이것으로부터 거리 두고 지켜볼 수 있는 내공을 키워야 된다.

—2011년 11월 10일 오후 1:02 모바일에서
아... 눈에 보이지 않는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서 정작 나는 그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었다. 다음 주에는 막걸리 한 병 사들고 가서 할아버지께 사죄해야겠다.

그래도 제 마음은 아시죠.

부디 오래오래 보존하시옵소서.

—2011년 11월 12일 오후 11:14 모바일에서
미신타파 외친 새마을 운동
인디언들의 아름다운 사머니즘
현대인들 소비생활의 한 부분이 된 사주 궁합 타로
거대한 기독교
기독교 안에 들어간 샤먼적 풍습
도시 안에 남은 미신
미신과 샤먼 사이에 서 있다.

어디서부터가 미신이며 어디까지가 샤머니즘이라고 말할 수 있나. 모두가 거대한 통찰력으로 모든 종교를 바라볼 수 있나.

—2011년 11월 15일 오후 1:02 모바일에서 나를 위한 글쓰기

오늘 밤 자고, 내일 밤 자면 3개월 간 악몽을 꾸며 준비한 ‘끝나지 않는 이야기’가 끝난다. 어쩌면 후속편 끝나지 않는 뒷담화가 나올지도 모른다.

스스로 초인이 되기 위한 글쓰기 아닌, 그저 느껴지는 그대로의 글쓰기 하련다.

힘들었다. 여러 사람들의 말과 그 말이 불러오는 말에 썩인 듯 무거웠다.

시작, 우리의 바람은 아주 단순한 것이었다. 함께 사이 좋게 교감하자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리서치 초반에 그 전통을 지킨다는 말의 ‘지킨다’는 떠나보냈다.

현재의 우리가, 지금 남은 이들과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고민했을 때 가장 그 전통의 정신이 담아질 수 있는 형식=동네 사람들의 열린 참여, 만남을 빌려 공연을 만들었다.

30년, 50년, 70년의 역사들이 수십 명 모였다.

각 역사들이 이제껏 살아왔던 이해와 오해들이 낳은 반응들이 활궤어 왔다.

보석 같이 빛나는, 사람에 대한 배려에 눈물 나는 순간도 있었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순간도 있었다.

그런 순간, 그렇지 않은 순간 모두가 있기에 안타깝도록 아름다운 인간이며 세상이라.

세월을 겪어온 인간의 영혼에는 의심도, 각자가 만들어온 다른 세상과 인간과 신에 대한 해석이 오래 고이고 배여 있었다. 자신이 더 인정받고픈 마음, 맞지 않는 이해관계로 인해 미워하는 마음도 상당히 컸다. 그의 모습에서 읽어낸 위의 모습들은, 나에게 이미 있기 때문에 읽어낼 수 있었을 것이다.

내가 더 알고 있고 인정받아야 하고 그것을 방해하는 듯한 사람은 미워하고 내가 생각하고 해석하는 세상과 신이 옳다고...

우리는 과연 소통할 수 있는가라는 판에 박힌 질문 대신에 머리로 그의 생각과 나의 생각을 맞춰가기 전에 우리는 뭔가를 필요로 한다.

남사스럽게 사람들 사이에서 따지는 말들을 폭탄처럼 내뿜던 어머니이지만,

우리가 먹을 밥을 제일 챙겨주는 어머니이기도 했다. 한 걸음 물러나서 다시 생각해본다.

그의 믿음을 나의 종교에 대한 해석으로 폭행한 것이 아닌가. 그의 앎을 나의 과학에 대한 이해로 폭행한 것은 아닐까.

그저 우리가 하는 일은 올바른 뜻을 추구하는 일이라고 하고 고래고래 나아가는 게 삽 하나 들었던 그와 마찬가지로 아닌가, 핵폭탄을 만들기 전에 반성 또 반성해봐야 하는 게 아닐까.

두 걸음 물러나서 그렇다면

우리의 진심은 어떻게 전달될 수 있을까
만나는 것도 욕심일까.

그를 이해하면서 서로의 선의를 느낄 수 있을까. 뜻과 형태가 완전히 일치되는 공연, 작품을 언제나 꿈꾼다.

하지만 항상 그 과정에서 꼬이거나 양금이 남는 것 같다. 계속 온갖 방법들을 새로 생각해내고 시도하고 있지만. 뜻과 형태가 하나라는 건 어쩌면 신도 실패한 과업일지 모르겠다.

—2011년 11월 17일 목요일 오후 10:48 무대 위에서 드라마틱한 시간성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작품들을 보면서 문득 이걸 언제부터 시작된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할아버지의 옛날이야기는 시공간을 통통 튀어 다니는데. 보이는 것으로 조작한 시공간은 이렇게 납득이 되지 않을 줄이야.

공연을 보면서 뭔가 쓰고 싶어 하는 나를 보며 문득 문자로 써야 정리되는 생각들이 과연 나의 생각과 앎일까라는 의문이 들었다. 문자일량 만들지 말자했던 노자님이나 원주민들의 뜻은 쓸데없이 많은 생각하지 말자라는 뜻인가 보다.

—2011년 11월 25일 오후 10:30 모바일에서 나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로 제목을 정했다.

설깃설깃 스쳐가며 종이 쪼가리들로 책상과 책장에 만발해 있던 텍스트를 한데 다시 모아주려고 하는데 음 체력적으로 엄두가 나지 않기도 한다.

글도 펜이 아니라 몸으로 쓰는 거다.

크리스티앙 슈바제의 ‘나는 자연이라고 발음하는 신만 믿는다’라는 문장 이후 나의 신앙은 고정되었다. 자신의 신과 믿음만을 고집하며 상대의 신을 폄하하는 상황을 보면 역장이 무너진다.

당신이 침을 뱉은 상대의 신이 곧 당신의 신이 라오. 서로 배타적인 것은 잘하면서 서로의 것을 연결 짓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다.

무위당 장일순 선생님 이후 그런 사람을 못 찾아보았다.

목마르게 만나고 싶다.

기독교와 불교와 유교와 도교와 원시종교를 연결 짓는 이를 만나면 거기에 과학과 인류학까지 플러스 해준다면 온 몸의 피가 활발히 돌 것 같다.

이런 신부님, 목사님, 스님, 도사님 만나고 싶습니다.

—2011년 11월 27일 일요일 오후 12:01 미신과 과학 사이에 선 당산동 할아버지들을 만나고, 독실한 카톨릭 신자인 어머니와 통화를 끊은 후. 종교 이면의 의미해석과 종교 자체의 신비 사이에서 고민하다 순간 느낌이 왔다.

가능하다 가능하다를 믿는 것이 신앙이구나.

그것을 은유라고 정신과 물질이 하나라고 대칭적 사고라고 머리 쪼개 해석해왔지만.

나는 소년, 나는 모래 바람, 그리고 다시 나는 소년이 되어 연금술사의 소년이 사막에서 순간이동 하듯이. 지구는, 우주는 하나의 가능성이구나.

가능성이 형태를 띤 모습이구나.

오늘 밤은 아름답네.

—2011년 12월 1일 오후 7:40 모바일에서